

LG U+, 전국 5개 도시 '찾아가는 영화 시사회' 진행

단골·이벤트 당첨 고객 등 2000명 대상

LG유플러스는 18~19일 2일간 전국 5대 도시에서 영화 시사회 이벤트인 'U+ 찾아가는 영화관'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LG유플러스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U+ 찾아가는 영화관 이벤트는 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 등 전국 5대 도시에서 총 2000명 고객을 대상으로 열리는 영화 시사회 이벤트다.

18일 롯데시네마 서울 월드타워에서 LG U+ 매장의 단골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U+ 찾아가는 영화관 프로모션은 강남·서초·송파 지역 LG U+ 매장의 직원들이 VIP 단골 고객을 직접 초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동반 1인 포함해 총 500명이 대상이다.

19일 오후 8시에 롯데시네마 서울 월드타워·부산 부산본점·대전 둔산·대구 성서·광주 수완에서 열리는 U+ 찾아가는 영화관 이벤트



직원들이 'U+ 찾아가는 영화관' 영화 시사회 프로모션을 준비하고 있다. /LG유플러스

는 LG유플러스 홈페이지에서 5일부터 12일 까지 진행했던 이벤트 응모에 당첨된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시사회에서 상영하는 영화는 배우 류준열

과 유지태가 주연한 '돈'이다. 19일 롯데시네마 서울 월드타워에서 오후 8시에 열리는 행사에는 영화 돈의 주연배우 무대인사도 포함됐다.

/김나인기자 silkni@metroseoul.co.kr

박영선 후보가 가져야 할 덕목



기자 수첩

김승호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출입기자로서 개인적으로 또다시 정치인 출신이 장관 자리에 오지 않기를 바랐다. 차기 중기부 장관 하마평에 여러 명이 거론될 당시에도 정치인이 아닌 관료 출신 등이 어떨까 싶었다. 어차피 백지신탁 때문에 기업 오너 출신은 쉽지 않고, 학계 출신은 유력 후보로 거론되지 않았으니 이번엔 차관 등을 거친 '원공(원래 공무원)'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다.

말 나온 김에 이유를 좀더 설명하자.

우선 문재인 정부에서 유일하게 장관급으로 격상된 중기부의 첫 수장에 정치인을 앉혀놓고보니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다. 취재를 하면서 수 없이 만난 중소·벤처·소상공인업계 사람들이 두루 내놓은 평가가 그러하다. 물론 출범 후 첫 장관이어서 업계의 기대가 너무 컸던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첫 장관은 대통령의 말을 옮기기에 바빴다. 정책적 이슈가 생길 때마다 대통령의 발언과 장관의 발언을 구별하기 힘들었다.

중기부는 전통시장 상인, 편의점 주인, 실패했다 다시 도전하는 기업인, 대학생 창업가, 중소·벤처기업인 등 소위 '삼라만상'을 관

장하고 있는 부처다. 그 중 일부는 복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보니 현장의 목소리가 다양하고, 요구하는 것도 많다. 일부 요구는 너무 심하다 싶은 것도 있다.

이 때문에 주무부처 장관은 정부의 정책이나 지침을 위에서 아래로 전달하기 보단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부, 청와대, 국회 등에 전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덕목으로 꼽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를 '공감능력'과 '포용력'이라고 표현했다. 중기부 장관에겐 이같은 능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차관급 부처에서 장관급 부처가 되면서 '빈집에 소가 들어온' 중기부만해도 그렇다.

특히 국장급 이상의 고위직을 자체적으로 채용할 때 타부처나 개방직을 통해 수혈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중기부는 출범 당시 가장 중요한 것이 '통합'과 '업무능력제고'였다. 그러나 부처엔 정치인 장관밖에 보이지 않았고, 심지어 2인자였던 차관도 제 역할을 찾지 못하는 등 혼란이 불가피했다.

"정치인은 짐작다리일 수밖에 없다. (자리를)정치적 목적이나 욕망의 발판으로 활용하려고 한다."

중소·벤처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한 전문가가 신랄하게 내놓은 말이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 자리에 앉게 될 정치인 박영선 후보가 귀담아야 할 이야기이기도 하다.

/bada@

기아차, 2018년 판매 우수자 163명 시상

정승주 망우지점 부장 14년 연속 판매왕

기아자동차의 판매왕이 한자리에 모였다. 기아차는 15일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2019 기아 스타 어워즈'를 열고 지난해 판매 우수직원 163명에 시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나해 767대를 판매한 망우지점 정승주 영업부장이 '판매왕'으로 뽑혀 14년 연속 판매왕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1994년 공장 생산직으로 입사해 1999년 영업직으로 전직한

정승주 부장은 2006년부터 기아차 판매왕 자리를 지키며 누계판매 6000대를 달성해 '그레이트 마스터' 호칭을 받았다. 연 평균 300여대 이상 판매라는 대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정승주 영업부장은 "상품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늘 고객 한 분 한 분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한 것이 비결"이라며 "2019년에도 고객의 취향을 반영한 신차 등을 통해 기아차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전달하



'2019 기아 스타 어워즈'에서 판매왕에 오른 망우지점 정승주 영업부장.

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양성운 기자 ysw@

오늘의 운세

3월 19일 (음 2월 13일)

http://www.saju4000.com

- 48년생**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60년생** 헛소문에 신경 쓰지 말고 주관을 가지고 행동. **72년생** 그동안 노력한 보람이 주어지지 보람을 느낀다. **84년생** 나도 받을 때가 있는 법 베풀 능력이 있을 때 베풀어라.
- 49년생**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순리대로. **61년생** 망신 수가 있으니 매사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 **73년생** 문서로 인한 이익이 있으니 기회가 오면 적극적으로. **85년생** 수고로움은 많으나 실속은 적으니 삼재의 기운이다.
- 50년생**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데 주저하지 마라. **62년생** 마음속에 간직했던 일이 이루어지니 기쁜 하루. **74년생** 배우자와 솔직한 대화를 하도록. **86년생** 생 큰일을 맡게 되니 위축되지 말고 소신대로 밀고 나가라.
- 51년생** 복을 날이니 일이 늦어져도 경거망동하지 마라. **63년생** 남의 험담을 들어도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아야 한다. **75년생** 열심히 일하고도 좋은 소리 못 듣는다. **87년생** 평소 애 썼던 덕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많다.
- 52년생** 지나친 일 욕심은 건강을 해치게 되니 주의해야. **64년생** 억울해도 뒷 사람에게 따지거나 언쟁하지 마라. **76년생** 호사다마이니 잘 나갈 때 더 조심. **88년생**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니 겸손한 태도가 빛을 발한다.
- 53년생** 내가 좋다고 남도 다 좋은 건 아니다. **65년생** 서리가 내리면 얼음이 일 것을 미리 대비. **77년생** 서로에게 좋은 씨를 뿌려야 좋은 열매를 맺는 법. **89년생** 힘들지만 위기를 겪으면서 부족한 자신을 알게 된다.

- 54년생**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조심. **66년생** 겹집을 깨뜨리고 나와야 새로운 세계를 만나니 고정관념을 버려라. **78년생** 좋은 친구를 만나 즐거운 하루. **90년생** 수영을 하러 바다에 나왔으면 물에 들어가야 한다.
- 55년생** 터널 속처럼 답답하니 빨리 빠져나오는 것이 관건. **67년생** 특출한 아이디어로 주변의 부러움을 산다. **79년생** 초조하더라도 조금만 기다리면 좋은 결과. **91년생** 대가만성(大器晩成)은 노력도 그만큼 해야 할 것.
- 56년생** 믿는 도끼에 찍히지 않으려면 세밀히 살피라. **68년생** 권태로운 생활을 벗어나려 해도 쉽지 않다. **80년생**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는 격이니 난감. **92년생** 동남쪽에서 귀인이 나타나니 좋은 소식이 온다.
- 57년생** 주변이 시끄러우니 두문불출. **69년생** 용이 여의주를 얻은 격이니 계획대로 뜻한 바를 무사히 달성한다. **81년생** 가까운 사람과의 불화를 조심해야. **93년생** 모난 돌이 정 맞는 법이니 오늘은 나쁘지 마라.
- 58년생** 시시비비를 가리다 보면 내 실수도 튀어나온다. **70년생** 비운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하지 않던가. **82년생** 남쪽으로 길을 나서면 발걸음이 가볍다. **94년생** 산도 좋고 물도 좋은데 정자까지 좋은 곳은 없다.
- 59년생**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으니 노를 힘껏 저을 때. **71년생** 자고 일어나도 피곤이 풀리지 않으니 휴식이 필요. **83년생** 겨울인가 했는데 매화가 피었으니 희망이 가까이가 있다. **95년생** 사람을 믿는 것이 큰 자산.



김상회의四季 삼종가피(三種加被)

보이지 않는 힘의 조력을 받는 것을 가피라 한다. 불자들의 경우 가피를 입는다. 가피를 받는다는 말을 쓴다. 기독교나 천주교신자들이라면 "은혜를 입는다." "기도응답을 들었다." 라는 분들도 본 적이 있다. 각자가 믿는 종교의 최고봉 또는 그 반열에 있는 선한 초월 존재의 능력에 기대어 받는 도움을 말하는 것이니 가피나 기도응답이라 함은 모두 좋은 의미의 교감을 의미할 것이다. 파우스트가 악마인 메피스토포의 유혹을 받아 당장 원하는 것을 얻는 사악한 힘과의 거래가 아닌, 신의 은총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의미의 가피이자 은혜인 것이리라.

불가에서는 삼종가피(三種加被)라 하여 현증가피, 명훈가피, 몽중가피를 얘기한다. 다급한 일을 당했을 때 우선 당장 빠르면 3일 이내, 늦어도 1주일 이내에 도움을 받는 것이 현증가피(顯證加被)라 한다면, 은근하게 보호를 받으며 일상생활 중에서 안전하게 지내는 것이 명훈가피의 덕이다. 몽중가피라 하여 꿈속에서 길흉을 예지 받아 위험을 피하거나 좋은 길상사에 대한 예지를 받는 것도 수승한 가피의 하나로서 사주에 귀문살, 화개살이 있는 사람들은 평소 꿈을 통해 미래를 미리 느끼며 예감한다. 우리나라 대승불교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티벳불교에서는 꿈 요가라 하여 일상생활의 부정적인 기운을 감소시키고 밝고 힘 있는 긍정생활의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훈련을 하고 있기도 하다. 꿈은 예지의 힘을 미리 보여준다고 하여 예지몽이라 부르기도 한다. 동양뿐만 아니라 그리스로마신화나 서양문학의 고전인 일리어드나 오딧세이를 보자면 후파 하면 나오는 것이 꿈을 통한 신탁의 계시다. 꿈이 그만큼 하늘의 뜻과 인간을 이어주는 통로가 됨을 알 수가 있으니 어찌 몽중가피가 없다 하겠는가?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2
							1	3
3	9	8	4					5
8				1	3			5
	2			6				3
6				7	2			8
4	7	1	3					9
						6	1	
								7

						7	8	5
				5			2	
				9				
	9					8	1	2
		5						3
1			2					9
	7		3			2		6
9			7				3	
2				8	1			

스도쿠 정답								
2	7	6	5	1	9	8	3	4
8	1	9	2	7	3	5	6	4
6	3	5	9	8	1	2	7	4
1	8	7	2	4	5	6	9	3
5	2	4	7	9	8	3	1	6
9	5	2	1	6	4	7	8	3
5	9	2	1	2	7	8	6	4
7	1	8	6	2	3	9	5	4
2	6	8	5	9	7	1	4	3

문제 제공= 보누스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창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김교준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7400206 2002년5월28일 제4161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7450111 2017년3월09일 제0265호